

시	고운석	시	김애순	동시	박정식
암탉을 읽다		눈꽃		체험학습	
<p>우리 어머니는 암탉이셨나보다. 먹이를 찾아 덫발을 치고 다니며 새끼를 키우고 밤이면 주을세라 온몸으로 품고 부리는 반쯤이나 많아 발가락으로 땅을 판다. 이렇게 힘이 들어도 말이 없으셨다. “등과 뼈마다 결린다고 송아지가 우는구나”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지 혼잣말로 흘리고 밤이면 날 품고 주무시다 새벽을 만나 부엌으로 가 문틈 사이로 방안을 들여다보는 어머니 주름살로 삶을 세니 세월의 자국 무척이나 깊다</p>		<p>아스라한 허공 어느 냉골에서 언 살에 핏줄 끌어모아 심방 키우더니 끌내 터진 양수 풀풀 쏟아내며 투박한 시슬레의 풍경 위에 신발한 이마나부께 각진 호흡 포갠다</p> <p>내려 쌓인 산고에 발목 빠져 바들거리는 향나무 밭치에서 일상을 부여안은 이들은 직직한 외투로 살얼음 건너는데</p> <p>송이버섯 나무에 숨어든 겨울새 푸드덕 날아올라 은반 위 음자리표 나뭇가지에 걸칠 즈음</p> <p>흰 피의 야기타 숨결 메아리로 번져오는 시계(視界)</p> <p>백야의 영상으로 설원을 달려 잿빛 옷소매 걸어 올리고 목화솜 배롱꽃 몽실몽실 세기의 설화 한 점 빛어야겠다</p>	<p>꿀벌이 꽃 속에 들어가더니</p> <p>한참 동안 귀엣말 듣고 나온다.</p> <p>천연 꿀 만드는 법 천연 향기 만드는 법 배우고 나온다.</p> <p>나누며 베풀며 사는 법</p> <p>직접 체험하고 나온다.</p>		
약력		약력		약력	
<p>▲‘조선문학’ 시 등단 ▲조선문학문인회·광주전남문인회·한국시인협회·시산맥· 서석문학·조선시문학회·국제팬클럽·한국복지문화예술인협 회 회원 ▲서석문학 부회장, 광주문화 감사, 전남·광주시립 감사, 대 한일보·호남매일 논설위원 ▲시집: ‘남촌일기’, ‘청죽과 소나무이고 싶네’ ▲칼럼집: ‘민은 하늘인데’ ▲신문: ‘광주이야기’, ‘세상에 이런 일도’ 외 다수 연재</p>		<p>▲‘문화춘추’, ‘문예사조’ 시 부문 등단 ▲전남문화상 등 수상 ▲‘전남문화’ 편집장, 전남문화인협회 시분과위원장, 전남여고 문화회 부회장, 시류문화회 회장 등 역임, 현 광주문화인협회, 전 남문화인협회 이사, 한국문화인협회 시분과 회원 ▲시집: ‘오동꽃 필 때면’, ‘겨울 그뒤’</p>		<p>▲1991년 ‘아동문예’ 작품상 동시 당선 ▲동시집: ‘비디오 판독 중’, ‘바람도 키가 큰다’ 외 ▲수상: 한국아동문학상, 한국동시문학상, 방정환문학상 등</p>	

수필**지금은 봄****운
재
회**

날씨가 출다. 찬 바람이 옷깃을 스치며 계절의 깊이를 고요히 일깨운다. 추위 탓인지 낯선 통증이 아릿하다. 종일 걸어도 멀쩡하던 다리가 아프다. 걸음이 느려지니 생각이 많아지고 계단 앞에 서면 시간이 잠시 멈춘다. 첫 걸음을 내디딜 때면 “아~” 나오 모르게 나오는 소리. 무지근한 통증이 유달리 밀려오던 날, 병원으로 향했다. 염증 때문이라고 한다. 의사 선생님이 “두 달 동안 운동하면 안 됩니다”라고 주의를 준다. 매일 칠팔천 보 걸음을 걷는데 두 달 동안 걷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나이 먹으니 여러 가지 몸의 변화가 온다. 거울 앞에 서면 예전의 검고 운기 있는 머리카락은 간곳없고 힘없는 은실을 만난다. 세월

이 가져다준 시간의 색이다. 자연의 순리를 따라가는 것이 더 어울리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수용하기가 힘들다. 신기한 건 요즈음 검은 머리가 몇 개씩 돋기 시작한다. 회춘하여 검은 머리로 되돌아가는지 기대해 본다.

청력이 떨어진다. 누군가 두세 번씩 말해주어야 겨우 알아들을 때면 민망함보다 미안함이 앞선다. 가족의 말도 몇 번씩 반복해서 되물을 때가 있지만, 대충 짐작하여 듣는다. 필요할 때는 재차 확인하고 되묻기도 한다. 말을 적게 하며 듣기기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면서 자연히 겹손을 배우게 된다.

안경을 쓴 건 50대 초반이다. 책을 오래 보면 눈이 피로하고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하여 안경을 쓰게 되었다. 눈 위에 살짝 얹힌 안경 하나로 세상이 또렷하게 보이는 게 신기했다. 하지만 이젠 안경만으로 부족

하여 돋보기를 찾아 더듬고 약 봉투의 작은 글씨가 보이지 않아 한참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하지만 덜 보이니 따뜻한 말 한마디도 마음이 금세 더워진다. 사물을 확인하는 데도 주의를 기울여야 보니 자연스럽게 삶의 속도가 느려지게 된다. 예전에 허투루 지나쳤던 풍경이 이제는 더 깊게 다가오고, 작은 풀 한 포기도 아름답게 보인다.

이태 전 겨울이 유난히 매서웠다. 거실에 앉아 물을 한 컵 마시려는 순간 겨우 보지 못했던 통증으로 가슴은 조여 오고, 식은땀이 나오 손끝이 떨렸다. 119에 전화를 걸었다. 이제는 내 몸이 나를 지켜 주지 못하는 걸까. 불현듯 서글픔이 몰려왔다. 병원에 도착하자 서둘러 심근경색 수술실로 이동되었다. 모니터의 심장 박동 소리는 생명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한동안은 숨을 쉴 때 심

장이 다시 멈추지는 않을지 두려웠다. 심장의 스텐트는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알리며, 더 조심스럽게 소중하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이렇게 몸의 각 부분이 말을 걸어오는 나아가 되었다. 누군가 침침하다고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팔다리는 아파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모든 변화는 몸이 바쁘게 달려왔으니 전전히 관심을 두고 사랑해 달라고 알려 주는 것이다. 그런 불편들이 소소한 것들의 아름다움과 삶의 소중함을 몸으로 체험하게 한다.

요즈음은 남편에게 얹매이지 않고 자유롭다.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식탁에 마주 앉지만, 하루의 흐름은 다르다. 그는 아침마다 신문을 통독하고 복지관으로 출근하여 악기를 배우고 운동을 한다. 나는 걷기를 하고 돌아

와 책을 펼친다. 밀줄을 긋고 활자 속에서 또 다른 인생을 만난다. 우리는 서로 방해하지 않으며 한 집에서 각자의 우주를 품고 살고 있다. 함께 있지만 집착하거나 얹매이지 않는 관계, 지금의 시간은 어쩌면 우리 부부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다.

사람들은 강산이 일곱 번 변한 이 나이를 인생의 겨울이라 말하지만 내겐 가장 따뜻하고 친밀한 봄날이다. 나 다른 삶, 배우고, 읽고, 쓰는 충만한 자유. 지금은 봄이다.

약력

▲‘광주문화’ 등단
▲35년 초등학교 근무
▲수필집: ‘시간의 경계에는 꽃이 핀다’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불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진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철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목포지사 061)278-0740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강릉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www.kjdaily.com

